

제도가 바뀝니다

2028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그리고 중학교 3년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1부 · 대입이 바뀝니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아닌가 · 6편

2부 · 학교가 바뀝니다 고교학점제 — 채우는 법과 못 채웠을 때 · 2편

3부 · 중학교 3년 그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6편

1 부

대입이 바뀝니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아닌가

우리 아이는 어느 제도로 시험 보나

2028 대입, 무엇이 달라지나

선택과목이 없어집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심화수학이 빠졌습니다

내신 5등급,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는 까닭

2 부

학교가 바뀝니다

고교학점제 — 채우는 법과 못 채웠을 때

고교학점제 — 192학점과 졸업 요건

미이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3 부

중학교 3년

그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중2, 내신이 실제로 시작되는 자리

중등 수학이 무너지는 자리

중등 생활기록부, 고입에 어떻게 쓰이나

중3 1년 달려

중학교 3년 점검표

74 · 차례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우리 아이는 어느 제도로 시험 보나 8
2. **02** 2028 대입, 무엇이 달라지나 13
3. **03** 선택과목이 없어집니다 18
4. **04** 통합사회·통합과학 23
5. **05** 심화수학이 빠졌습니다 28
6. **06** 내신 5등급,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는 까닭 33
7. **07** 고교학점제 — 192학점과 졸업 요건 38
8. **08** 미이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43
9. **09** 중1,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48
10. **10** 중2, 내신이 실제로 시작되는 자리 53
11. **11** 중등 수학이 무너지는 자리 58
12. **12** 중등 생활기록부, 고입에 어떻게 쓰이나 63
13. **13** 중3 1년 달력 68
14. **14** 중학교 3년 점검표 73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이 책을 펴신 까닭은 대개 하나입니다 — 「우리 아이는 어느 제도인가.」 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고3은 옛 제도, 고2부터 2028학년도 새 제도입니다. 내신 5등급제는 그보다 이른 2025년 고1부터 적용됐습니다. 두 제도가 따로 움직입니다.

이 책은 제도 문서만 정본으로 썼습니다. 교육부 확정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 기사나 학원 설명이 아니라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짐작이 가장 많이 팔리는 자리입니다. 확정된 것과 안 정해진 것을 섞어 말하면 대비가 아니라 불안이 팔립니다.

세 부의 차례

부	무엇을	이 부의 물음
1부	2028 대입 개편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아닌가
2부	고교학점제	졸업을 어떻게 채우고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3부	중학교 3년	그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부를 먼저 읽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첫 편 — 우리 아이가 어느 제도인지 모르면 나머지가 다 헛읽기가 됩니다.

3부는 지금 중학생인 집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 부모님도 마지막 편(3년 점검표)은 한 번 보시면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 책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유리한가요」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새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답을 자신 있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대신 **확정된 것은 출처를 달아 적고, 안 정해진 것은 안 정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저희 판단인 자리는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구분을 보아 주십시오.

03 · 먼저 사실부터

우리 아이는 어느 제도인가

「수능이 바뀐다던데 우리 아이도 해당되나요?」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인데 **가장 늦게 답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제도 설명은 넘치는데 「누구부터 적용되는가」가 흐릿하게 적혀 있어서, **학부모님이 남의 제도를 공부하고 계신** 일이 생깁니다.

2028 대입개편은 **2023-12-27 교육부 발표**에 확정됐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입니다. 학년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026년 지금	대입 연도	어느 제도인가
고3	2027학년도	기존 제도 — 선택과목 수능 · 9등급 내신
고2	2028학년도	첫 적용 — 통합형 수능 · 5등급 내신
고1	2029학년도	새 제도
중3	2030학년도	새 제도

현 고2가 첫 적용 학년입니다. 그 아래는 다 새 제도입니다.

그러니 **고3 학부모님**은 개편 이야기를 **안 보셔도 됩니다.** **고2 이하**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한 줄로 읽을 것과 안 읽을 것이 같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27) 보도자료. **학년 계산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재수·조기졸업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04 · 무엇이 헛갈리나

두 제도가 따로 움직입니다

혼란의 큰 까닭이 있습니다. **대입 개편**과 **고교 교육과정**이 시기가 다릅니다.

무엇	언제부터	누구부터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2025년 고1부터 — 현 고2
내신 5등급제	2025년 고1부터	같은 — 현 고2·고1
2028 대입개편	2028학년도 대입	같은 학생 — 현 고2

셋이 같은 학생에게 걸립니다. 2025년에 고1이 된 학생이 **고교학점제**로 배우고, 5등급으로 성적을 받고, **2028학년도**에 **통합형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2028 개편」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학생에게 걸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다만 이름이 달라 헛갈립니다

기사와 안내가 어떤 때는 「고교학점제」로, 어떤 때는 「2028 개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이야기인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적을 받는가」이고, **2028 개편**은 「그 학생을 대학이 어떻게 뽑는가」입니다. 배우는 쪽과 뽑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고교학점제 시행 안내. 정리와 설명은 저희 판단입니다.

05 · 무엇이 안 바뀌나

검먹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

바뀌는 것만 이야기하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대로인 것도 함께 보셔야 균형이 잡힙니다.

무엇	바뀌나	뜻하는 것
수시와 정시	그대로	여섯 장·세 장 구조가 유지됩니다
학종·교과·논술	그대로	전형 갈래는 그대로입니다
생활기록부	그대로	세특이 읽히는 것은 같습니다
수능최저	그대로	등급으로 겁니다
수능 과목 구성	바뀝니다	선택과목이 없어집니다
내신 등급	바뀝니다	9등급 → 5등급

위 넷이 그대로입니다. 즉 **입시의 뼈대는 그대로**이고 **재는 자가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니 다 새로 배워야 한다」는 과장입니다. 저희 자료 가운데 수시 구조·원서·학과를 다룬 편들은 개편 뒤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바뀌는 둘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이 시리즈의 나머지입니다

선택과목이 없어지는 것과 내신이 5등급이 되는 것 — **이 둘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를** 다음 편들에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전형 운영은 대학이 정하므로** 세부는 **대학별 전형계획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06 · 그래서 무엇을

학년별로 할 일

지금	지금 할 일	이 시리즈
고3	기존 제도로 원서 · 개편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해당 없음
고2	통합형 수능 대비 · 과목 선택 점검	전부
고1	과목 선택 · 최소 성취수준 · 내신 5등급	전부
중3	고교 선택 시 개설 과목을 보십시오	F1·F7·F8
중1·중2	아직 이릅니다 — 제도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F1만

맨 아랫줄을 적어 둔 까닭이 있습니다. 중1·중2 학부모님이 지금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까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는 적용 학년이 가까워졌을 때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여섯 가지

- ☐ 우리 아이가 몇 학년도 대입 인지 세어 보았는가
- ☐ 기존 제도인지 새 제도인지 아는가
- ☐ 재수를 생각한다면 그때 어느 제도 인지 확인했는가
- ☐ 내신이 9등급인지 5등급인지 아는가
- ☐ 보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제도 기준 인지 확인하는가
- ☐ 오래된 자료를 지금 기준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셋째를 꼭 보십시오. 개편이 걸린 해에 재수하면 준비하던 것과 시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수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설명회를 여러 번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교육부 발표 한 건이고, 나머지는 그 해석입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고, 불안을 키우는 쪽으로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어느 제도인지만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제도의 원문을 보십시오. 그게 가장 빠릅니다.

07 · 자주 묻는 것

적용 시기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재수하면 어느 제도로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보는 해의 제도를 따릅니다. 졸업한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편이 걸린 해에 재수하면 준비하던 것과 다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선택과목으로 공부했는데 **통합형으로 바뀌어** 있거나, 범위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재수 판단에서 매우 큰 변수입니다. 앞서 다룬 재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바뀌는 첫해는 기출이 없고 난이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수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볼 해의 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평가원 시행계획에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몇 달을 헛되이 쓸 수 있습니다.

Q. 지금 있는 입시 자료는 못 쓰나요?

대부분 그대로 쓰입니다. 앞서 본 대로 입시의 뼈대는 안 바뀝니다.

수시 여섯 장·정시 세 장, 학종·교과·논술, 생활기록부와 세특, 수능최저를 등급으로 거는 것 — **다 그대로**입니다.

못 쓰게 되는 것은 둘입니다. **선택과목을 전제로 한 설명**(미적분이나 확률과통계나 같은 것)과 **9등급 기준 표**입니다.

특히 **9등급 표를**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에 아직 많이 돌아다니는데, **1등급이 4%로 적혀 있으면 옛 표**입니다. 5등급제는 **1등급이 10%**입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인원이 절반 이하로** 나옵니다.

자료를 보실 때 「**몇 등급제 기준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먼저 우리 아이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그 한 줄이 읽을 것과 안 읽을 것을 가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년 계산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재수·조기졸업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는 이후에도 조정될 수 있으니 **교육부·평가원 공지가 정본**입니다.

08 · 숫자부터**바뀌는 것은 셋입니다****「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가요?」**

기사가 많은데 읽고 나면 더 헷갈립니다. **바뀌는 것은 크게 셋**입니다. 나머지는 그 셋에서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셋만 잡으시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1	수능 선택과목	국어·수학·사회·과학에서 없어집니다
2	탐구	통합사회·통합과학 으로 출제됩니다
3	내신 등급	9등급 → 5등급 , 절대·상대를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떨려 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 **심화수학(미적분 II·기하)**이 수능 출제에서 빠집니다.

이 넷이 확정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내신이 없어진다**」·「**수시가 줄어든다**」 같은 이야기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수시·정시·전형 갈래는 그대로**입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27 교육부 발표). 이 자료는 **확정 발표에 적힌 것만** 담았습니다. 해석과 전망은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09 · 무엇이 다른가

전과 후를 나란히

	지금까지	2028부터
국어	화작·언매 중 선택	공통 — 모두 같은 시험
수학	확통·미적·기하 중 선택	공통 — 심화수학은 제외
탐구	17과목 중 2과목 선택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어	절대평가	그대로
내신	9등급 상대평가	5등급 · 절대+상대 병기

셋째 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은 17과목 가운데 둘을 고르지만, 앞으로는 모두가 같은 두 과목을 봅니다.

선택이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과목 사이 유불리 문제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어느 과목을 골랐느냐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져 「무엇을 고를까」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그 고민이 없어집니다.

대신 범위가 넓어집니다. 두 과목만 파던 것을 사회·과학 전반으로 봐야 합니다. 깊이는 알아지고 넓이는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내신은 두 숫자가 적힙니다

절대평가 성취도(A~E)와 상대평가 등급(1~5)이 함께 적힙니다. 둘 다 남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을 안 적습니다. 그 과목들은 절대평가만 남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세부 운영은 이후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교육부·평가원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10 · 무엇을 조심하나

아직 안 정해진 것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가르는 것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된 것	아직 아닌 것
수능 과목 구조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탐구가 통합사회 · 통합과학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내신 5등급·병기	대학이 무엇을 반영할지
심화수학 제외	이공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오른쪽 칸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셋째 줄입니다. 내신에 두 숫자가 적히는데 **대학이 어느 쪽을 볼지는 대학이 정합니다.** 절대평가만 볼 수도, 상대평가만 볼 수도, 둘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 대학 전형계획이 나와야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확정된 것은 준비하시고, **안 정해진 것은 기다리십시오.** 확정된 것에 대한 준비는 분명합니다 —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넓게 보고, 선택과목 고민은 안 하고, 내신은 절대·상대 둘 다 챙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정해진 것을 지금부터 대비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대학이 무엇을 볼지는 **발표가 나와야** 압니다.

안 정해진 것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한다는 상품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대학이 안 정한 것을 학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공개된 후속 안내. 「아직 아닌 것」은 이후 발표로 정해집니다.

11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할 일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우리 아이가 새 제도인지 확인	앞 편에서 다뤘습니다
2	통합사회·통합과학 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1학년 공통과목입니다
3	내신 두 숫자 가 다 나오는지 확인	성적표에서 보입니다
4	보는 자료가 몇 등급제 기준 인지	9등급 표가 아직 됩니다

2번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공통과목**이라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새 제도 적용** 인가
- ☐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없다** 는 것을 아는가
- ☐ 탐구가 **통합사회·통합과학** 인 것을 아는가
- ☐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진다** 는 것을 아는가
- ☐ 내신이 **5등급** 인 것을 아는가
- ☐ 내신에 **두 숫자** 가 적히는 것을 아는가
- ☐ 보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제도 기준** 인가
- ☐ 「아직 안 정해진 것」을 **정해진 것처럼** 들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항목을 특히 보십시오. **대학이 무엇을 반영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걸 안다고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으십시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8 대비반**」을 서둘러 등록하지 마십시오. 확정된 것은 **과목 구조뿐**이고,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출이 없는 시험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대개 짐작**입니다. 지금 확실한 준비는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건 **학원 없이도** 됩니다.

12 · 자주 묻는 것

개편 내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선택과목이 없어진다면 이과가 불리해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정하는 쪽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볼 근거는 있습니다.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고 탐구가 통합과학이 되면 **이공계 지망생이 깊게 판 것을 보일** 자리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볼 근거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과목 선택으로 생기던 유불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학이 **학생부에서 이공계 과목 이수**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이공계 과목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안 봐도 **학생부에는 남습니다**.

Q. 내신에 두 숫자가 적히면 어느 쪽이 중요한가요?

대학이 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구조에서 짐작되는 것은 있습니다. **절대평가만 보면 학교 간 차이를 못 가립니다** — 시험이 쉬운 학교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변별이 필요한 전형은 상대평가를 볼 가능성이 큼**니다.

반대로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성취도와 과목 선택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둘 다 챙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둘을 챙기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 그 과목을 제대로 하면 **둘 다 올라갑니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를 미리 알려 준다는 말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바뀌는 것은 셋이고, 입시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확정된 것은 준비하시고, 안 정해진 것은 기다리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에 적힌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난이도·문항·대학 반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전망이나 유불리를 예측하지 않으며, 교육부·평가원 공지가 정보입니다.

13 · 먼저 사실부터**고민 하나가 사라집니다**

「미적분을 해야 하나 확률과통계를 해야 하나.」

고1 겨울마다 되풀이되던 고민입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이 고민이 없어집니다.** 국어·수학·사회·과학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두가 같은 시험을 봅니다.

지금 제도에서 이 고민이 왜 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에서 센 바로는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입니다.

고1에 고른 과목이 고3의 지원 자격을 정했습니다.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8부터
국어	화법과작문 · 언어와매체 택1	공통
수학	확률과통계 · 미적분 · 기하 택1	공통
탐구	17과목 중 택2	통합사회 · 통합과학

고르는 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를까」에서 「무엇을 얼마나 깊게 할까」로 물음이 바뀝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및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지정과목 집계는 현행 제도의 것이며 개편 뒤에는 달라집니다.

14 · 무엇이 달라지나

얻는 것과 잃는 것

얻는 것	잃는 것
과목 유불리가 사라집니다	잘하는 과목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고1에 큰 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잘못 골라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깊이로 차이를 내기 어렵습니다

왼쪽 첫 줄이 가장 큼니다

지금은 어느 과목을 골랐느냐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과목을 본 학생이 유리해지는 해가 있고, 그 반대인 해도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점수가 갈리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같은 시험, 같은 잣대가 됩니다.

오른쪽 둘째 줄이 실제 부담입니다

탐구가 17과목 중 2과목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이 됩니다. 두 과목만 깊게 파던 것을 사회·과학 전반으로 봐야 합니다.

깊이는 알아지고 넓이는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한 과목을 아주 잘하는 학생보다 고르게 아는 학생에게 맞는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깊이를 보일 자리가 줄어들면, 깊이는 학생부에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목 이수와 세특이 그 자리입니다.

다만 대학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15 · 그러면 학교 과목은

수능과 학교는 다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를 풀어 두겠습니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진다고 학교 과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학교
과목	공통 — 선택 없음	고교학점제로 골라 듣습니다
미적분 II · 기하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어디에 남나	수능 점수	학생부 이수 기록

둘째 줄이 핵심입니다. 심화수학은 수능에서 빠질 뿐 학교 교육과정에는 남습니다. 이공계를 갈 학생은 여전히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이 학생부에서 그 이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능에 안 나오니 안 들어도 된다」가 성립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이 공통이 되면 수능으로는 학생을 가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대학은 다른 자료를 봅니다 — 학생부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무엇을 골라 들었는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입니다. 앞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무엇을 반영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입니다.

16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할 일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수능 과목 고민을 접습니다	고를 것이 없습니다
2	학교 과목은 진로 로 고릅니다	수능 유불리가 아니라
3	통합사회·통합과학 을 넓게 봅니다	1학년 공통과목입니다
4	이공계면 심화 과목 을 학교 에서 들습니다	학생부에 남습니다

2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고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기준은 「내 진로에 필요한가」 뿐입니다.

이건 오히려 건강한 방향입니다. 다만 진로를 더 일찍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목을 고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새 제도 적용** 인가
- ☐ 수능에 **선택과목이 없다** 는 것을 아는가
- ☐ **심화수학**이 **학교**에는 남는다 는 것을 아는가
- ☐ 학교 과목을 **수능 유불리**로 고르고 있지 않은가
- ☐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학교에 개설** 되는가
- ☐ **통합사회·통합과학** 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아는가
- ☐ 이공계라면 **심화 과목**을 들을 계획인가
- ☐ 「수능에 안 나오니 안 듣는다」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여덟째를 조심하십시오. 수능에 안 나와도 학생부에는 남고, 대학은 학생부를 봅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그 과목이 필요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이 필요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권 학원과 컨설팅이 값을 받던 자리였습니다 — 과목 유불리를 계산해 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계산이 없어집니다. 남는 물음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이고, 그건 저희보다 부모님과 아이가 더 잘 아십니다.

17 · 자주 묻는 것

선택과목 폐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수학이 쉬워지는 건가요?

범위가 좁아지는 것과 쉬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심화수학이 빠지니 다루는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그 안에서 변별을 해야 합니다. 범위가 좁아진 만큼 그 안에서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기출이 없고, 첫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출제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쉬워지니 부담이 준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확실한 것은 「고를 것이 없다」 뿐이고, 얼마나 어려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Q. 이제 이과·문과 구분이 없어지나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되는 방향입니다. 같은 시험을 보니 수능 성적만으로는 이과·문과가 안 갈립니다.

그런데 대학은 여전히 계열로 뽑습니다. 공대는 공대이고 인문대는 인문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릴까요.

남는 것은 학생부의 이수 과목과 세특입니다. 이공계 과목을 듣고 그 결의 활동을 한 학생인지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어진다」기보다 「구분이 수능에서 학생부로 옮겨간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저희 판단이고, 대학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능에서 고를 것이 없어진다면 **학교 과목을 진로로 고르게** 됩니다. 「수능에 유리한 과목」이라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난이도와 대학 반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18 · 먼저 사실부터**열일곱에서 둘로****「탐구를 뭘 골라야 하나요?」**

지금까지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과목마다 응시자가 달라 **표준점수가 크게 벌어졌고**, 그래서 **실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점수가 같았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고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8부터
과목 수	사탐 9 · 과탐 8 — 17과목	2과목
고르는 법	그중 2과목 택	고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생활과윤리 · 물리학 I 같은 개별 과목	통합사회 · 통합과학
사탐·과탐 구분	고를 때 갈립니다	둘 다 봅니다

맨 아랫줄이 큰 변화입니다. 지금은 사탐만 보거나 과탐만 보는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가 사회와 과학을 다 봅니다.**

참고로 현행 제도에서는 **최저 문장이 과탐을 지목한 자리가 525줄**이었습니다. 그런 지목이 **무의미해집니다** — 모두가 같은 것을 보니까요.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지목 집계는 현행 제도의 것이며 개편 뒤에는 달라집니다.

19 · 무엇이 다른가

깊이에서 넓이로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공통과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개별 탐구 과목	통합사회·통합과학
범위	한 분야를 깊게	여러 분야를 넓게
언제 배우나	2·3학년 선택	1학년 공통
준비	그 과목만	사회와 과학 전반
유리한 학생	한 분야를 잘하는	고르게 아는

둘째 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우는 과목**입니다. 수능은 **3학년에 봅니다.** 2년의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대충 하고 넘어가면 3학년에 다시 해야** 합니다. 반대로 **1학년에 제대로 해 두면 그만큼 뒤가 편합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과목을 합쳐 놓은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를 함께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생명·지구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놓고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다만 **문항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기출이 없습니다.

출처: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부 확정안. 출제 방식과 난이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 · 누구에게 유리한가

단정할 수 없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될 가능성
고르게 잘하는	유리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한 과목만 아주 잘하는	그 강점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사탐만 보던	과학을 새로 해야 합니다
과탐만 보던	사회를 새로 해야 합니다

셋째·넷째 줄이 실제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한쪽만 보던 학생이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다만 범위가 1학년 공통과목 수준이라 깊이는 예전 개별 과목보다 얇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목 수가 늘었다고 부담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점수 계산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어느 과목이 표준점수가 잘 나올까」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자주 빗나갔습니다 — 누가 몰릴지는 시험 전에 모르니까요.

모두가 같은 과목을 보면 그 계산이 사라집니다. 운에 기대는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건 분명한 이점입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1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할 일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1학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제대로	고1
2	탐구 과목 고민을 접습니다	—
3	2·3학년 선택은 진로로 고릅니다	고1 겨울
4	3학년에 1학년 내용을 복습합니다	고3

1번과 4번이 짝입니다. 1학년에 배운 것을 3학년에 시험 봅니다. **2년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가 이 시리즈에서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학년에 제대로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번 제대로 한 것은 복습이 빠릅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새 제도 적용** 인가
- ☐ 탐구가 **통합사회·통합과학** 인 것을 아는가
- ☐ **사회와 과학을 다 본다** 는 것을 아는가
- ☐ 이 과목이 **1학년 공통** 인 것을 아는가
- ☐ 1학년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
- ☐ 2·3학년 선택을 **진로로** 고르고 있는가
- ☐ **기출이 없다** 는 것을 알고 있는가
- ☐ 「대비 교재」의 **근거를 물어** 보았는가

여덟째를 특히 보십시오. **기출이 없는 시험의 「대비 교재」**는 짐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학교 교과서와 수업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대비반」을 서둘러 등록하지 마십시오. 기출이 한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는 교육과정을 보고 짐작해 만든 것입니다. 짐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작에 값을 치를 만한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과 교과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22 · 자주 묻는 것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과목이 둘로 줄면 공부량이 주는 건가요?

과목 수는 줄지만 범위는 넓어집니다. 총량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7과목 중 2과목을 깊게 봅니다. 앞으로는 2과목인데 그 안에 사회 여러 분야, 과학 여러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깊이는 알아지고 넓이는 넓어지는 방향이라 총 공부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무엇을 고를까」에 쓰던 시간과 불안입니다. 그 계산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부담이 줄입니다.

Q. 지금 고1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수능 범위입니다.

많은 분이 「따로 뭘 해야 하나」를 물으시는데, 지금은 따로 할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출이 없고, 출제 방향도 안 나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과서와 학교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내신에도 들어갑니다 —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가 겹칩니다.

1학년에 제대로 해 두면 3학년에 복습이 빠릅니다. 지금 가장 값이 큰 준비가 그것입니다. 새 교재를 찾기 전에 학교 것부터 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탐구는 **고르는 시험에서 다 보는 시험**이 됩니다. **1학년 공통과목이 그대로 수능 범위**이니, 학교 수업이 곧 준비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제 방식·난이도·문항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23 · 먼저 사실부터**수능에서 빠졌습니다**

미적분 II와 기하가 2028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둘입니다 — 「그럼 안 해도 되나요」와 「이공계는 어떡하나요」. 둘 다 답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8부터
수능	미적분 · 기하 택1 가능	출제 안 함
학교 수업	선택 과목으로 개설	그대로 개설
학생부	이수 기록 남음	그대로 남음
대학 수업	이공계에서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빠진 것은 수능 한 칸뿐입니다. 나머지 세 칸은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현행 제도에서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지목이 **없어집니다** — 수능에 그 과목이 없으니까요.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2 개정 교육과정,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지목 집계는 현행 제도의 것입니다.**

24 · 무엇이 빠졌다

이름을 정확히 보십시오

「수학이 빠졌다」가 아닙니다. 빠진 것은 두 과목입니다.

과목	무엇을 다루나	수능
대수	지수·로그·수열	나옵니다
미적분 I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나옵니다
확률과통계	경우의 수·확률·통계	나옵니다
미적분 II	초월함수의 미분·적분	안 나옵니다
기하	이차곡선·공간벡터	안 나옵니다

미적분 자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미적분 I 은 그대로 나옵니다. 빠진 것은 삼각함수·지수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률과통계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확통이나 미적이나」로 갈리던 것이, **확통 쪽으로 통일된**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이렇습니다

확률과통계를 보던 학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적분을 보던 학생은 수능에서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만 없어진 것은 「수능에서 쓸 자리」이지 「배울 이유」가 아닙니다. 다음 면에서 그 까닭을 보시겠습니다.

출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육부 확정안. 과목 이름과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 기준입니다.

25 · 그림 안 해도 되나

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남나
학교 과목	선택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이수와 성적, 세특이 남습니다
대학 수업	공대 1학년 미적분학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셋째 줄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대학 이공계 1학년 미적분학은 초월함수의 미적분에서 출발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고 가면 대학 첫 학기에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수능에 안 나오는 것과 대학에서 안 쓰는 것은 다릅니다. 이 편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둘째 줄도 가볍지 않습니다

수능이 공통이 되면 수능 성적만으로 이공계 적성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대학은 학생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화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그 자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대학이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 수능 부담은 줄었고, 배울 이유는 남았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 안 한다」는 판단이 위험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과목 개설 여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6 · 그래서 무엇을

진로에 따라 갑니다

진로	심화수학을	왜
공대 · 자연대	듣는 쪽을 권합니다	대학에서 바로 씁니다
의약계열	듣는 쪽을 권합니다	이공 기초가 필요합니다
인문 · 사회	안 들어도 됩니다	쓸 자리가 적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열어 두십시오	안 들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맨 아랫줄이 실제로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고1·고2에 진로가 확정된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안 들었다가 이공계로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들었다가 인문계로 가면 잃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두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과목을 정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새 제도 적용** 인가
- ☐ 빠진 것이 **미적분 II·기하** 인 것을 아는가 (미적분 I 은 남습니다)
- ☐ 학교에는 **그대로 개설** 되는 것을 아는가
- ☐ 우리 학교에 **실제로 개설** 되는가
- ☐ 진로가 **이공·의약** 쪽인가
- ☐ 아직 모르겠다면 **열어 두는 쪽** 으로 정했는가
- ☐ 「수능에 없으니 안 한다」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 ☐ 학원 과정을 **수능 기준으로만** 짜고 있지 않은가

넷째를 꼭 확인하십시오. 수능에서 빠지면 신청자가 줄고, 신청자가 적으면 학교가 개설을 접습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수능에 안 나온다」는 한 줄만 듣고 학교 심화 과목을 통째로 접는 일입니다. 수능 부담이 준 것은 사실이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대학에 가서 그 과목을 씁니다. 고등학교에서 3년에 걸쳐 배울 것을 대학 첫 학기에 몰아서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만 보십시오.

27 · 자주 묻는 것

심화수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이공계 준비가 쉬워진 건가요?

수능 준비는 가벼워졌고, 대학 준비는 그대로입니다.

수능에서 두 과목이 빠졌으니 시험 범위는 줄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 공대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학년 미적분학·일반물리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안다고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쉬워졌다」기보다 「부담이 수능에서 학교로 옮겨갔다」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들으면 오히려 전보다 낫습니다 — 수능 문제 풀이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Q. 학교에 개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개설은 수요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학생이 모이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공동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 학교가 함께 여는 과목으로, 다른 학교에서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운영이 다르니 학교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온라인 학교나 방과후가 남습니다. 다만 학생부 이수 기록으로 남는지는 경로마다 다릅니다. 기록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 학점으로 안 남아도 내용은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으로도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수능에서 빠진 것은 **미적분 II·기하** 두 과목이고, **학교·학생부·대학 수업**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28 · 먼저 사실부터

아홉에서 다섯으로

「5등급제가 되면 내신이 쉬워지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등급 하나에 들어가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급	9등급제 누적	5등급제 누적	5등급제 구간
1	4%	10%	상위 0~10%
2	11%	34%	11~34%
3	23%	66%	35~66%
4	40%	90%	67~90%
5	60%	100%	91~100%

1등급이 4%에서 10%로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2등급을 보십시오.** 9등급제에서 2등급은 **상위 11%**까지였습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상위 34%**까지입니다. 같은 「2등급」이라는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의 성취평가 및 석차등급 산출 기준. 2025년 고1부터 적용됩니다.

29 · 중요한 것

두 성적이 함께 적힙니다

등급 수보다 더 큰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과목마다 절대평가 성적과 상대평가 등급이 함께 적힙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무엇을 보나	내가 얼마나 아는가	남과 견줘 어디쯤인가
어떻게 적나	A · B · C · D · E	1~5등급
남에게 영향	안 받습니다	받습니다

이 둘이 나란히 적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A인데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들 잘하는 반이라는 뜻입니다. 「B인데 1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들 어려운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이 이 둘 중 무엇을 볼지, 어떻게 섞을지는 대학마다 다를 것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이 편의 제목이 「단정할 수 없다」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아예 안 적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적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성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에서는 등수 경쟁이 없습니다.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대학별 반영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융합선택 과목의 범위는 교육과정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30 · 유리한가 불리한가

누구에게 어떻게

「쉬워졌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까닭을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될 가능성
최상위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1등급에 10%가 들어옵니다
상위권 언저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1등급 문이 넓어집니다
중위권	2등급 안에 넓게 묶입니다

첫째 줄이 뜻밖이실 수 있습니다. 9등급제에서 상위 1%인 학생과 상위 9%인 학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갈렸습니다. 5등급제에서는 둘 다 1등급입니다.

아주 잘한 것이 성적표에서 안 보입니다. 변별이 줄어드는 자리이고, 최상위권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무엇으로 가릴까

내신으로 가리기 어려워지면 다른 자료를 봅니다. 세특, 절대평가 성적, 이수 과목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후해졌으니 편해졌다」가 아니라 「등급 말고 볼 것이 늘었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이고, 대학이 실제로 무엇을 볼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출처: 교육부 확정안. 유불리와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31 · 그래서 무엇을

지금 할 일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왜
1	절대평가 성적도 챙깁니다	함께 적힙니다
2	세특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가릴 자리가 옮겨갑니다
3	융합선택은 등급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담이 다릅니다
4	유불리 계산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4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볼지 안 나온 상태에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셈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 절대평가로도 상대평가로도 잘 나오는 성적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보든 좋은 성적이니깐요.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우리 아이가 **5등급제 적용** 인가 (2025년 고1부터)

☐ **1등급이 10%** 인 것을 아는가

☐ **2등급이 누적 34%** 인 것을 아는가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히는 것을 아는가

☐ 성적표에서 **두 성적을 다** 보고 있는가

☐ **융합선택 과목** 에 등급이 없는 것을 아는가

☐ 9등급제 기준으로 **유불리를 셈하고** 있지 않은가

☐ 「5등급제 대비 특강」 의 **근거를 물어** 보았는가

일곱째를 조심하십시오. 9등급제 기준(1등급 4%·2등급 11%)으로 셈하면 전부 틀립니다. 5등급제는 10%·34%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에서 저희가 못 드리는 것이 「그래서 유리한가요」에 대한 답입니다. 대학이 이 성적을 어떻게 볼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답을 자신 있게 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근거가 「예상」이라면 그건 예상이지 답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32 · 자주 묻는 것

5등급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 부담이 줄어든 건 맞나요?

한 과목 안에서의 등수 경쟁은 완화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1등급에 10%가 들어가니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줄어든 만큼 다른 데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신으로 못 가려면 세특과 절대평가 성적을 더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 「총 부담이 준다」 기보다 「부담의 모양이 바뀐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등수를 다투는 부담은 줄고, 내용을 채우는 부담은 남습니다.

Q.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도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부터 하십시오.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 과목 내용을 아는 것, 그것을 글과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 — 이 셋은 9등급제에서도 5등급제에서도 똑같이 값이 있습니다.

반대로 「5등급제 전용 전략」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학 반영 방식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만든 짐작입니다.

짐작에 시간과 비용을 쓰기 전에 안 바뀌는 것부터 채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모집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1등급은 10%, 2등급은 누적 34%이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용됩니다. 유불리는 대학 반영 방식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33 · 먼저 사실부터**졸업이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은 「출석 일수」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학점입니다. 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입니다. 대학과 같은 방식입니다.

무엇을	학점	어떻게 채우나
교과 — 필수이수	84	국어·수학·영어 등 반드시
교과 — 자율이수	90	골라서 듣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18	자율·동아리·진로
합계	192	3년간

둘째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90학점은 학생이 골라서 채웁니다. 학교가 시간표를 다 정해 주던 시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자리입니다.

1학점은 한 학기 16회 수업입니다. 한 학기에 약 32학점쯤을 듣게 됩니다.

출처: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학점 배분은 교육과정 편성 예시이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4 · 학점을 어떻게 얻나

출석과 성취율, 둘 다

수업에 들어갔다고 학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	기준
과목 출석률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학업 성취율 40%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만 채워서는 학점이 안 나옵니다.

성취율 40%가 무슨 뜻인가

성취도	성취율	학점
A	90% 이상	나옵니다
B	80~90%	나옵니다
C	70~80%	나옵니다
D	60~70%	나옵니다
E	40~60%	나옵니다
—	40% 미만	안 나옵니다

E까지는 학점이 나옵니다. 40%에 못 미치면 못 받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보충 과정을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4 「2025학년도 이후 학점 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안내」, 시도교육청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안내자료(2025). 체육·음악·미술은 3단계(A·B·C)로 평가합니다.

35 · 무엇이 실제로 바뀌나

고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고교학점제
시간표	학교가 다 정합니다	일부는 학생이 고릅니다
반	같은 반이 같이 다닙니다	과목마다 구성이 달라집니다
졸업	출석 일수	학점 192
낙제	사실상 없었습니다	과목 미이수가 생깁니다

맨 아랫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출석만 하면 졸업이었습니다. 이제는 과목마다 최소한을 넘겨야 합니다.

수강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과목은 아무 때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은 10월 말 최종 확인서로 확정, 변경은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 이 날짜를 놓치면 원하는 과목을 못 들립니다.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니 가정통신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반」의 뜻이 달라집니다

과목마다 듣는 학생이 달라지니 담임이 아이의 모든 수업을 보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닿는 경로가 예전보다 성깁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성적표를 학기마다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수강신청 일정과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36 · 그래서 무엇을

학년별로 할 일과 점검표

시기	무엇을
고1 봄	공통과목을 제대로 — 뒤 과목의 바탕입니다
고1 가을	진로를 좁히고 2학년 과목을 봅니다
고1 10월	수강신청 확인서 — 놓치면 못 바꿉니다
학기마다	성취도와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맨 아랫줄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미이수는 학기가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늦습니다. 학기 중에 알면 보충할 시간이 있습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우리 아이가 **고교학점제 적용** 인가 (2025학년도 1학년부터)
- ☐ 졸업에 **192학점** 이 필요한 것을 아는가
- ☐ 그중 **90학점**을 골라서 채우는 것을 아는가
- ☐ 학점에 **출석과 성취율** 두 요건이 있는 것을 아는가
- ☐ **성취율 40%** 기준을 아는가
- ☐ **수강신청 기한** 을 학교에 확인했는가
- ☐ 학기마다 **이수 여부를 확인** 하고 있는가
- ☐ 과목을 **진로로** 고르고 있는가

여섯째가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고교학점제를 「과목을 잘 골라야 하는 제도」로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의 무게 중심은 「고르는 것」보다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192학점을 채우는 것, 과목마다 최소한을 넘기는 것. 고르기 전에 채울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감당 못 할 과목을 고르는 것이 안 고르는 것보다 나쁩니다.

37 · 자주 묻는 것

고교학점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192학점을 못 채우면 유급인가요?

졸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는 192학점보다 넉넉하게 시간표를 짭니다. 한 과목을 못 채워도 총량으로는 여유가 있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미이수가 나면 보충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가 먼저 찾아내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못 채우면 유급」이라는 말로 아이를 겁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기마다 확인은 하십시오 —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제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Q. 과목을 잘못 골랐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서 제출 전이면 자유롭게 바꿉니다. 제출 뒤에도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는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사정으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반이 이미 짜였거나 정원이 찼을 때입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 과목을 끝까지 가는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 그 과목의 선수 과목을 들었는가, 주당 시수가 얼마인가, 평가 방식이 무엇인가. 이름만 보고 고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줄로 남기면

졸업은 3년 192학점이고, 학점은 출석 3분의 2와 성취율 40%를 둘 다 채워야 나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점 배분·수강신청 일정·변경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십시오.

38 · 먼저 사실부터

미이수는 낙제가 아닙니다

「미이수」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덜컥합니다. 낙제나 유급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못 채운 만큼 채우고 학점을 받는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언제 미이수가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기준	못 채우면
출석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미이수
성취율	학업 성취율 40% 이상	미이수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방지도 + 보충지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마치면 학점을 받습니다.

	예방지도	보충지도
누구를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	미도달 학생
언제	학기 중	학기 말 또는 방학

예방지도가 먼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이수가 나기 전에 학교가 먼저 찾아냅니다.

출처: 교육부 2024 「2025학년도 이후 학점 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안내」, 시도교육청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안내자료(2025).

39 · 절차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학교가 밟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단계	시기	무엇을 하나
준비	학기 시작 전	학교가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 대상 과목·선정 방법·시기
1	학기 초	진단평가·교사 추천으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2	학기 중	예방지도 — 방과후 지도, 보충과제,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등
3	학기 말	대상 확정 후 안내, 보충지도 운영 (방과후 또는 방학 중)

1단계의 「학부모에게 안내」를 놓치지 마십시오. 학기 초에 연락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값싼 시점입니다 — 학기 말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보충지도는 얼마나 하나

1학점당 5시수 (4학점 과목이면 20시수)입니다. 그리고 총 운영 시수의 3분의 2 이상 참여 시 이수 인정합니다.

방식은 대면 지도, 온라인 콘텐츠(EBSi), 보충과제, 학습멘토링 등입니다. 대면 지도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위와 같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방과후·방학중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40 · 기록은 어떻게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학생부에 남나요?」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나
보충지도를 마치면	학점을 받습니다
성적	보충지도 뒤 부여되는 성적의 상한은 성취도 E
이수 여부	이수로 기록됩니다

둘째 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충지도를 마치고 받는 성적은 E가 상한입니다. D나 C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보충지도로 매우면 된다」는 계산은 안 맞습니다. 학기 중에 40%를 넘기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출석이 모자란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성취율은 채웠으나 출석이 모자란 학생에게는 준하는 추가학습으로 이수 기회 제공
즉 성적은 되는데 출석이 모자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출석은 뒤늦게 메울 수 없는 것이라 결석이 쌓이기 전에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목별 출석이라는 점을 특히 보십시오. 학교는 나왔는데 특정 과목만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목만
미이수가 됩니다.

출처: 위와 같음. 학생부 기재 방식은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정해집니다 —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41 · 그래서 무엇을

미이수를 막는 법과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감당할 수 있는 과목을 고릅니다	수강신청 때
2	학기 초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3월·9월
3	과목별 결석을 봅니다	학기 내내
4	중간고사 뒤 낮은 과목을 확인합니다	학기 중반

4번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큼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낮은 과목이 미이수 후보입니다. 그때 손을 쓰면 기말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예방지도는 「희망자」 대상입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권유가 오면 받으시는 편을 권합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미이수 기준이 출석 3분의 2·성취율 40% 인 것을 아는가

☐ 출석이 과목별 로 센다는 것을 아는가

☐ 학기 초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했는가

☐ 예방지도가 신청해야 받는 것 임을 아는가

☐ 중간고사 뒤 낮은 과목 을 확인했는가

☐ 보충지도 성적 상한이 E 인 것을 아는가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을 본 적이 있는가

☐ 아이가 「미이수 = 낙제」로 겁먹고 있지 않은가

일곱째를 권합니다. 대상 선정과 시수, 운영 방법은 학교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편은 겁을 드리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미이수가 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학기 말에 통보받는 일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알고 있으면 학기 초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대개 넘어갑니다. 알고 계시라고 쓴 편입니다.

42 · 자주 묻는 것

미이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미이수가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대학이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보충지도를 마치면 이수로 기록되고 학점을 받습니다. 「미이수」라는 말이 그대로 남는 형태가 아닙니다.

영향이 있다면 성적 쪽일 것입니다 — 보충지도 뒤 부여되는 성적의 상한은 성취도 E이니 그 과목 성취도가 낮게 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자리는 「미이수라는 낙인」이 아니라 「그 과목을 못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도와 무관하게 챙기셔야 할 일이고요.

Q. 아이가 미이수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십시오. 대응이 달라집니다.

「미도달 예상」이라는 연락이면 학기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예방지도를 신청하시고, 남은 평가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도달 확정」이라는 연락이면 학기 말입니다. 보충지도를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총 운영 시수의 3분의 2 이상 참여 시 이수 인정하니 출석 관리가 그대로 다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십시오. 그 과목만인지 여러 과목인지, 내용이 어려운 것인지 출석 문제인지. 원인에 따라 다음 학기 과목 선택이 달라집니다.

학교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 줄로 남기면
미이수는 보충지도로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상한이 E이니, 학기 중에 넘기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시도교육청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 선정·시수·운영 방법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다르다 대학
반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43 · 먼저 사실부터

중1 성적은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중1 성적표를 보고 마음이 급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향을 확인한
자사고 12곳 가운데 중1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른 자리가 중2 1학기입니다.

갈래	언제부터 세나
자사고	중2 1학기부터 — 확인한 12곳 모두
외고 · 국제고	중2~중3 네 학기 영어 — 확인한 13곳 중 12곳
과학고	최근 3~4개 학기 수학·과학 — 자유학기는 뺍니다

그러니 중1은 성적을 만드는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해도 아닙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 순위에 중1 성적을 쓰는 곳 1곳, 출결을 중1 1학기부터 합산하는 곳 1곳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적은 안 보되 출결은 볼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0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1이 가장 불안한 해일까
견줄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에서는 단원평가라도 있었고 중2부터는 지필평가가 있는데, 중1만 그것이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남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옆집은 벌써 중3 과정을 한다」 같은 말이 **확인할 길 없이 그대로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중1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각 학교가 공개한 입학전형 요항을 저희가 옮겨 쓴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44 · 그러면 무엇을

중1에만 할 수 있는 것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는 뒤집어 보면 실패해도 되는 해입니다. **중1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왜 중1에만
공부하는 법을 바꿔 봅니다	성적이 안 세어지니 실험할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을 알아냅니다	중2에 알면 손해가 큼니다
넓게 읽습니다	중2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잡습니다	이때 안 잡히면 내내 갑니다

첫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값이 큼니다. 초등에서 하던 방식이 중학교에서 안 통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중1에 그것을 확인하고 바꿔야** 합니다 — 중2에 바꾸면 성적이 흔들리고, 중3에 바꾸면 늦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 학원에 앉아 있는 시간 말고요. 필기를 스스로 하는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지,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지.

이 넷 중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중1에 잡으십시오.** 이건 성적보다 오래 갑니다.

이 면은 근거 자료가 아니라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와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5 · 자유학년제

오해와 사실

자유학기(학년)제는 지필평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들으셨다면	사실은
「시험이 없으니 논다」	수업과 평가는 있습니다 — 방식이 다를 뿐
「기록이 안 남는다」	학생부에는 남습니다 — 등급이 안 남을 뿐
「고입과 무관하다」	성적은 안 세지만 활동 기록은 읽힙니다
「그러니 선행을 몰아친다」	그 방향으로 쓰는 집이 많습니다 — 득실이 갈립니다

셋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면접합니다**. 자유학기에 한 활동이 그 자료에 남습니다.

선행으로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진도를 알고 있는 아이에게 선행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것을 모르는데 앞으로 나가면 중2에 두 배로 돌아옵니다.

판단하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지금 배우는 것을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되면 나가셔도 되고, 안 되면 지금 것을 다지십시오.

출처: 교육부·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운영 형태와 기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46 · 그래서 무엇을

중1 한 해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3~4월	초등과 무엇이 다른지 아이가 겪게 됩니다
여름	공부 방식에서 안 되는 것을 찾습니다
2학기	찾은 것을 고쳐 봅니다 — 실패해도 됩니다
겨울	중2 대비 — 여기서부터 성적이 쎵니다

맨 아랫줄이 중1의 결론입니다. 중1 겨울방학이 실질적인 출발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1 한 해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중1 성적이 고입에 안 들어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그래도 출결은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시간 이 있는가
- ☐ 필기를 스스로 하는가
- ☐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가
- ☐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 을 세우는가
- ☐ 선행을 한다면 지금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
- ☐ 중1 겨울 을 어떻게 쓸지 정했는가

셋째부터 여섯째가 안 되면 선행보다 그것을 먼저 잡으십시오. 이 넷은 중2·중3 내내 쓰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중1에 학원비를 가장 많이 쓰는 집이 많습니다. 「시험이 없어 불안해서」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해에 쓴 돈은 성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습관으로 돌아오면 값이 있고, 진도로만 돌아오면 값이 적습니다. 중1에 쓰실 돈이 있다면 중2·중3에 남겨 두시는 편이 저희가 본 바로는 낫습니다.

47 · 자주 묻는 것

중1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중1 성적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교과 성적은 그렇습니다. 다만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동점자 처리 순위에 중1 성적을 쓰는 곳 1곳, 출결을 중1 1학기부터 합산하는 곳 1곳 드문 경우이지만 0은 아닙니다.

둘째,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센 것은 지금 공개된 요항이고, 지금 중1이 원서를 낼 때는 요항이 두 번 더 바뀝니다.

그러니 「안 들어가니 놀아도 된다」로 읽지는 마십시오. 「성적을 만들려고 무리할 해는 아니다」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갈 아이에게도 중1은 중요합니다 — 중2 수학이 중1 위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Q. 주변에서 다들 선행을 하는데 안 하면 뒤처지지 않나요?

선행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것을 모르는 채로 하는 선행이 문제입니다.

판단은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설명이 되면 나가셔도 됩니다. 안 되면 그 자리를 먼저 메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한다」는 말은 근거가 아닙니다. 같은 학원에 다녀도 따라가는 아이와 앉아만 있는 아이가 갈립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인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뒤처지는 것은 진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진도는 따라잡히지만 구멍은 안 메워집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1 교과 성적은 고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성적을 만들 해가 아니라 방식을 고칠 해로 쓰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항을 저희가 쉰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48 · 먼저 사실부터

중2 1학기가 출발선입니다

고입 성적이 실제로 시작되는 자리가 중2 1학기입니다. 저희가 요항에서 학기별 비중을 확인한 자사고 12곳이 모두 중2 1학기부터 봤습니다. 중1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분	곳	어떤 모양
20 / 20 / 30 / 30	10	중2-1 · 중2-2 · 중3-1 · 중3-2
30 / 30 / 40	1	세 학기
20 / 30 / 50	1	세 학기

12곳 전부가 뒤 학기에 더 큰 무게를 뒀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외고·국제고도 결이 같습니다 — 확인한 13곳 중 12곳이 중2~중3 네 학기의 영어 성취도를 봅니다.

그러니 달력이 이렇게 됩니다

중2 1학기 중간고사가 고입 성적의 첫 칸입니다. 그 앞은 준비 기간이고, 그 뒤로는 매 학기가 기록에 남습니다.

중1과 중2 사이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중1 겨울방학을 어떻게 쓰느냐로 갈립니다.

출처: 각 학교가 공개한 입학전형 요항을 저희가 옮겨 쓴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49 ·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한 학기가 아닙니다

네 학기를 똑같이 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배분으로 보시겠습니다.

학기	비중	뜻
중2 1학기	20%	출발선 — 가장 가볍습니다
중2 2학기	20%	여기까지가 40%
중3 1학기	30%	무거워집니다
중3 2학기	30%	원서 전 마지막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하나. 중2에 흔들려도 회복이 됩니다. 중2 두 학기를 합쳐도 40%입니다. 중3 두 학기가 60%이니 뒤에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둘. 그래서 중3이 훨씬 무겁습니다. 「중2에 망했으니 끝났다」는 말은 틀렸고, 「중3은 어떻게든 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과학고는 셈이 조금 다릅니다

과학고는 수학·과학 성취도를 봅니다. 자유학기(학년)로 성적이 없는 학기는 빼고 최근 학기를 셉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보는 학기가 늘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 1·2단계는 3개 학기, 3단계에서 중3 2학기를 더해 4개 학기를 봅니다.

출처: 위와 같음. 확인한 과학고 22곳 가운데 학기 수를 요항에 적은 곳은 3개 학기 4곳 · 4개 학기 2곳였습니다.

50 · 무엇을 보나

전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갈래마다 보는 과목이 다릅니다.

갈래	보는 과목
외고 · 국제고	영어 — 확인한 13곳 모두
과학고	수학 · 과학
자사고	국어·수학·영어를 사회·과학 — 학교마다 다릅니다

첫째 줄이 뚜렷합니다. 외고·국제고는 영어 성취도만 봅니다. 배점을 밝힌 곳들은 A 40 · B 36 · C 32 · D 28 · E 24 (배점을 밝힌 4곳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A와 B의 차이가 4점입니다. 네 학기니 최대 16점이 갈립니다. 한 학기 B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큼니다.

자사고는 교과 비중까지 다릅니다

같은 자사고라도 국어 24% · 수학 28% · 영어 28% · 사회 10% · 과학 10%처럼 과목마다 무게를 다르게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망 학교가 정해졌다면 그 학교 요항의 배점표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내신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여기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과목을 얼마나 학교마다 다릅니다.

출처: 위와 같음. 교과 비중은 그렇게 적어 둔 학교의 예이며 모든 자사고가 같지 않습니다.

51 · 그래서 무엇을

중2 한 해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중1 겨울	중2 1학기 범위를 미리 — 여기부터 셉니다
중2 1학기	첫 지필평가 — 시험 보는 법을 익힙니다
여름	1학기에서 못한 과목을 메웁니다
중2 2학기	여기까지가 40% — 방향을 잡습니다

둘째 줄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아이가 중2 1학기 첫 시험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실력이 아니라 시험이 처음이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 한 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2학기를 보십시오.

중2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중2 1학기부터 성적이 세어지는 것을 아는가
- ☐ 뒤 학기가 더 무겁다 는 것을 아는가
- ☐ 지망 갈래가 보는 과목 을 아는가
- ☐ 지망 학교 요강의 배점표 를 본 적이 있는가
- ☐ 첫 시험 결과로 단정하고 있지 않은가
- ☐ 못한 과목을 방학에 메우고 있는가
- ☐ 출결 에 문제가 없는가
- ☐ 일반고로 갈 아이도 중2 수학 을 놓치지 않았는가

여덟째는 고입과 무관하게 중요합니다. 중2 함수에서 무너지면 고등 수학까지 갑니다 —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중2 첫 시험 성적표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초등·중1과 견줄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으로 갈래를 정하지 마십시오. 비중으로 보면 중2 1학기는 20%이고, 남은 것이 80%입니다.

52 · 자주 묻는 것

중2 내신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중2 1학기를 망쳤습니다. 특목고·자사고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직 아닙니다. 숫자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흔한 배분에서 **중2 1학기는 20%**입니다. 남은 세 학기가 **80%**입니다.

게다가 뒤로 갈수록 무겁습니다 — **중3 두 학기만 60%**입니다. 지금부터 올리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 회복이 되려면 남은 학기를 상당히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된다」가 아니라 「구조상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왜 망쳤는지를 보십시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면 회복됩니다. 내용을 못 따라간 것이면 그 자리부터 메워야 합니다.

Q. 우리 학교가 시험을 어렵게 냅니다. 불리한가요?

성취평가제라 학교 시험 난이도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는 점수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90점 이상이면 A** 하는 식입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A가 적게 나옵니다.

이건 제도상 그렇고, 학교를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둘입니다.

하나, 그 학교의 예년 성취도 분포를 학교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체감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둘, 어려운 시험은 대비가 됩니다. 기출을 구하고 출제 결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같은 선생님이 다음 시험도 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2 1학기부터 세고, 뒤 학기가 더 무겁습니다. 가장 흔한 배분은 20 · 20 · 30 · 30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항을 저희가 쟀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항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53 · 먼저 사실부터

무너지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말은 진단이 아닙니다. 중학교 수학은 앞이 뒤를 떠받치는 구조라 무너지는 자리가 몇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찾으려면 되돌아갈 자리가 보입니다.

학년	새로 나오는 것	무엇 위에 서나
중1	정수와 유리수 · 문자와 식 · 일차방정식	초등 분수 · 소수
중2	연립방정식 · 일차함수 · 도형의 성질	중1 문자와 식
중3	제곱근 · 이차방정식 · 이차함수 · 삼각비	중2 일차함수

오른쪽 칸을 보십시오. 중2는 중1 위에, 중3은 중2 위에 올라갑니다. 한 칸이 비면 그 위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3에서 못 푸는 문제의 원인이 중3에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대개 아래 칸에 있습니다.

그러니 물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학을 얼마나 시켜야 하나」가 아니라 「어디가 비었나」입니다. 앞의 물음에는 답이 없고, 뒤의 물음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 편은 비어 있는 칸을 찾는 법을 다룹니다. 문제를 더 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와 나누는 몇 마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기준입니다. 무너지는 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4 · 첫째 자리

중1 — 문자와 식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숫자를 다루다가 문자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초등까지	중1부터
$3 + 5 = ?$	$3 + x = 8$ 일 때 x 는?
답이 하나	답이 식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목적	표현이 목적

맨 아랫줄이 핵심입니다. 문자는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적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환을 못 넘긴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 「 $2x$ 가 무슨 뜻이야?」

「 x 두 개」 또는 「 x 를 두 번 더한 것」 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르겠는데 계산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여기가 자리입니다.

또 하나 — 「 x 는 왜 x 야?」 라고 물었을 때 「아직 모르는 수라서」 라고 답하면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가 자리이면

진도를 멈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를 안고 중2로 가면 일차함수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함수는 문자로 관계를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진단 문항이 아니라 대화로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55 · 둘째 자리

중2 — 일차함수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자리입니다. 중2 일차함수에서 걸리는 아이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래프는 그리는데 뜻은 모릅니다	절차만 외운 것입니다
기울기 공식은 아는데 왜인지 모릅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식은 푸는데 말로 된 문제에서 막힙니다	관계를 못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계산은 되는데 상황을 식으로 못 옮깁니다. 중1 문자와 식이 안 된 상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뜻이야?」 「 x 가 1 늘면 y 가 2 는다」 고 하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 라고만 하면 절반입니다. 공식만 말하면 여기가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한가

중3 이차함수가 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의 상당 부분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중2 일차함수는 중등에서 가장 값이 큰 한 단원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뒤에서 세 배로 돌아옵니다.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지 하나만 고르라면 저희는 여기를 고릅니다.

이 면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6 · 셋째 자리와 대응

중3과 되돌아가는 법

중3에서 막히면	대개 원인은
이차함수	중2 일차함수
이차방정식	중1 문자와 식 · 인수분해
제곱근	중1 유리수 · 수 체계
삼각비	중2 도형의 성질 · 닮음

오른쪽 칸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3 문제를 더 푸는 것으로는 안 메워집니다.

되돌아갈 때의 원칙 셋

하나. 한 자리만 잡으십시오. 여러 자리를 동시에 메우려 하면 어느 것도 안 됩니다.

둘. 문제 수가 아니라 설명으로 확인하십시오. 맞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말로 설명이 되면 넘어간 것입니다.

셋. 학교 진도는 계속 따라가십시오. 되돌아간다고 지금 것을 놓으면 구멍이 하나 더 생깁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2x$ 가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는가
- ☐ 기울기 2 가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는가
- ☐ 말로 된 문제를 식으로 옮길 수 있는가
- ☐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가
- ☐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가
- ☐ 진도를 이해 없이 나가고 있지 않은가
- ☐ 되돌아갈 자리를 하나 로 좁혔는가
- ☐ 학교 진도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가

넷째와 다섯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아이는 언제나 회복됩니다. 모르는 줄 모르는 아이가 어렵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진도를 더 나가면 나아지겠지」로 해결되는 경우를 저희는 못 봤습니다. 수학은 쌓는 과목이라 비어 있는 칸은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안 채워집니다. 돌아가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달을 돌아가면 반년이 편해집니다.

57 · 자주 묻는 것

중등 수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원에서는 잘한다는데 시험은 안 나옵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고, 대개 원인이 같습니다.

학원 수업에서는 **방금 배운 유형**을 풉니다. **무엇을 쓸지 이미 알고** 시작합니다. 시험에서는 **무엇을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푸는 것」은 되는데 「고르는 것」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문제를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원을 섞어서 풀어야 합니다 — 어느 단원인지 안 알려주고 내는 문제집이나 지난 단원을 섞은 복습이 그 훈련입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을 보십시오. 학원 교재와 학교 시험은 결이 다릅니다.

Q. 선행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학년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태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아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안 되면 나가면 안 됩니다.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집이 「**몇 학년 선행**」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같은 진도를 나가도 남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앉아 있던 시간은 같아도 쌓인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선행은 되돌아올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구멍이 있는 아이에게 선행은 그 구멍을 그대로 두는 선택입니다.

선행보다 복습이 값이 큰 아이가 저희가 본 바로는 더 많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2 일차합수가 중등 수학에서 가장 값이 큰 자리입니다. 막히면 위가 아니라 아래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편성과 저희 상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진단 결과가 아니므로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8 · 먼저 사실부터

두 곳에서 읽힙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고입에서 두 번 읽힙니다. 한 번은 성적으로, 한 번은 글로. 그런데 글로 읽히는 자리에는 적으면 안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적으면 벌점을 받습니다.

단계	무엇을 보나
1단계	학생부 성적 — 갈래마다 보는 과목이 다릅니다
1단계 서류	학생부 기록 + 자기소개서
2단계 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둘째·셋째 줄이 이 편의 주제입니다. 성적 이야기는 앞 편에서 했으니, 여기서는 글로 읽히는 자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

서류에 적은 것을 학생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천 교사를 함께 면담해 진위를 확인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잘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만 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요항. 벌칙의 강도와 문항은 학교마다 다르다.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59 · 적으면 안 되는 것

배제사항

자기주도학습전형에는 「배제사항」이 있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소를 평가에서 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적으면 안 되는 것	
1	각종 대회명과 입상 실적 (KMO·올림피아드 등)
2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여부
3	장학금
4	교과 성적과 인증시험·공인어학시험 점수
5	자격증
6	논문·도서·지식재산권·해외활동
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8	사설학원 활동

벌칙은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 그 단계 최하등급이 되거나 0점·감점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우회적 기재도 함께 금지됩니다.

이 마지막 대목을 특히 보십시오. 대회 이름을 안 쓰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 상을 받고」라고 적어도 걸립니다.

출처: 요항에 배제사항을 명시한 학교들의 문구. 항목과 벌칙의 강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그 해 요항을 확인하십시오.

60 · 그러면 무엇을 적나

남는 자리

배제사항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를 보겠습니다.

못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입상	학교 수업에서 한 탐구
영재원 수료	동아리에서 한 활동
공인어학 점수	읽은 책과 그 뒤의 생각
학원 활동	혼자 찾아본 과정

오른쪽 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 전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형은 학교 교육으로 자란 학생을 뽑겠다는 설계입니다. 바깥에서 사 온 실적을 일부러 못 쓰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큰 것은 이것입니다

수업 중에 생긴 물음과 그것을 스스로 따라간 과정. 결과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이 아이 것이면 됩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도 그 과정입니다 — 「왜 그것이 궁금했나」, 「어떻게 찾아봤나」, 「무엇을 알게 됐나」.

실적으로는 답할 수 없고 과정으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출처: 각 학교 요항의 평가 영역. 면접 문항과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61 · 그래서 무엇을

학년별로 할 일과 점검표

학년	무엇을
중1	관심 가는 것을 여러 개 건드려 봅니다
중2	그중 하나를 이어서 해 봅니다
중3	해 온 것을 말로 정리합니다

중2의 「이어서」가 핵심입니다. 한 번 한 것은 기록이지만 이어서 한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면접에서 답이 되는 것은 이야기 쪽입니다.

그리고 중3에 몰아서 만들 수 없습니다. 없던 것을 적을 수는 없고, 적어도 면접에서 드러납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배제사항 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우회적 기재도 금지 인 것을 아는가
- ☐ 학생부에 학교 안의 활동 이 쌓이고 있는가
- ☐ 이어서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 ☐ 아이가 그것을 말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왜 궁금했나」에 답할 수 있는가
- ☐ 바깥 실적을 쌓는 데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 ☐ 학생부를 학기마다 확인 하고 있는가

일곱째를 특히 보십시오. 배제사항에 들어가는 실적은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쓴 시간과 비용은 이 전형에서 값이 되지 않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생기부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조심하십시오. 학생부는 선생님이 적는 것이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넣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면접에서 그 글을 학생이 설명해야 합니다. 남이 쓴 글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값이 되는 것은 아이가 실제로 한 일뿐입니다.

62 · 자주 묻는 것

중등 학생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상을 받은 게 있는데 정말 못 쓰나요?

교외 대회 입상은 못 씁니다. 자기소개서에도, 면접에서 말해도 안 됩니다.

학교에 따라 그 단계 최하등급이 되거나 0점·감점입니다. 그러니 「몰래 흘리면 유리하지 않을까」는 반대로 갑니다.

다만 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배운 내용과 겪은 과정은 남습니다. 「대회」와 「입상」이라는 말만 빼고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알게 됐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못 쓰고 과정은 쓸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표현이 우회적 기재로 읽히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일반고로 갈 아이도 중등 학생부가 중요한가요?

고입에 쓰이는 정도로는 덜합니다. 일반고는 대개 배정이고, 학생부를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부를 쓰는 습관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대입에서는 학생부가 훨씬 크게 쓰입니다. 수업에서 물음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중학교에서 해 본 아이가 고등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안 해 본 아이는 고1에 처음 배웁니다. 고1은 그럴 여유가 없는 학년입니다.

그러니 고입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때문에 중등 학생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줄로 남기면

바깥 실적은 못 씁니다. 남는 것은 학교 안에서 아이가 실제로 한 일이고, 면접에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칙의 강도와 문항은 학교마다 다르다.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정해집니다.

63 · 먼저 사실부터

갈래마다 달력이 다릅니다

고입 일정은 하나가 아닙니다. 영재학교는 **중3 1학기 안에** 끝나고, 자사고·외고는 **겨울에** 끝납니다. **반년 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갈래를 보느냐에 따라 한 해를 짜는 법이 달라집니다.

갈래	원서	면접	최종
영재학교	5월	6~7월	여름
과학고	8월	11월	12월
외고 · 국제고	12월	12월	12월
자사고	12월	12월	12월~1월

영재학교 줄을 보십시오. 가장 이르다. **중3 1학기 안에** 끝난다 **중3이 되기 전에**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요항은 보통 9월** — 그 전 요항은 **지난해** 것입니다. 그 전에 보시는 요항은 **지난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시작되는 때가 다릅니다

영재학교·과학고를 볼 아이는 **중2 겨울에 이미** 달리고 있어야 합니다. **중3 3월에** 시작하면 원서까지 두세 달입니다.

외고·자사고는 **중3 한 해가 온전히** 남습니다. **중3 1학기** 성적으로 방향을 다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3이 되면 시작한다**」는 말이 갈래에 따라 맞기도 하고 늦기도 합니다. 어느 달력 위에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처: 각 학교 공개 요항의 날짜를 저희가 갈래별로 쉰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뀐다.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64 · 상반기

3월부터 여름까지

시기	무엇을	왜 그때
3월	지망 갈래를 둘로 좁힙니다	준비가 갑니다
4~5월	중3 1학기 중간고사	비중 30%의 절반
5월	영재학교 원서	지망한다면
6~7월	기말고사 — 1학기 성적 확정	대부분 여기까지 봅니다
여름	자기소개서 초안과 과학고 준비	8월에 원서입니다

3월의 「둘로 좁힌다」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과학고와 외고는 보는 과목이 다릅니다 — 수학·과학이나 영어냐. 둘 다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3월에 정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1학기 기말이 고비인가

과학고는 대개 중3 1학기까지의 성적으로 1단계를 봅니다. 7월에 성적이 확정되고 8월에 원서입니다.

즉 과학고를 볼 아이에게 중3 2학기는 성적을 올릴 자리가 아닙니다. 승부가 1학기에 끝납니다.

반면 외고·자사고는 중3 2학기까지 봅니다. 여름에 흔들려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출처: 위와 같음. 반영 학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지망 학교 요항을 확인하십시오.

65 · 하반기

9월부터 원서까지

시기	무엇을	왜 그때
9월	그 해 요항이 나옵니다	숫자가 바뀝니다
9~10월	중간고사 — 마지막 학기의 절반	비중 30%
10~11월	자기소개서 완성 · 면접 준비	12월 원서
11~12월	기말고사	성적 마감
12월	원서 · 면접 · 발표	한 달에 다 끝납니다

9월의 요항 확인을 거르지 마십시오. 모집인원·배점·일정이 지난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요항으로 준비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12월이 몰려 있습니다

원서·면접·발표가 12월 한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12월에 쓰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10월에는 초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갈래에 따라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전국 8곳 중 한 곳입니다.

이건 요항에 적혀 있고 거기면 불합격입니다. 발표 뒤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위와 같음. 중복지원 규칙은 갈래와 학교마다 다릅니다 — 반드시 요항에서 확인하십시오.

66 · 그래서 무엇을

한 해를 짜는 법과 점검표

성적 비중으로 한 해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학기	비중	남은 기회
중2 두 학기	40%	이미 끝났습니다
중3 1학기	30%	과학고는 여기까지
중3 2학기	30%	외고·자사고는 여기까지

가장 흔한 배분(10곳) 기준입니다. 중3에 60%가 걸려 있습니다.

중3 한 해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3월에 갈래를 좁혔는가
- ☐ 지망 갈래의 원서 시기 를 아는가
- ☐ 지망 학교가 어느 학기까지 보는지 아는가
- ☐ 9월에 그 해 요항 을 확인했는가
- ☐ 자기소개서 초안이 10월에 있는가
- ☐ 배제사항 을 확인하고 썼는가
- ☐ 중복지원 규칙 을 확인했는가
- ☐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 정해 두었는가

여덟째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12월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고 배정 일정도 그때 함께 돌아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중3에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둘 다 준비」입니다. 과학고도 보고 외고도 보겠다는 것인데, 보는 과목이 다르고 원서 시기가 넉 달 차이입니다. 둘 다 준비하면 둘 다 어중간해집니다. 3월에 하나로 정하시는 편이 저희가 본 바로는 낫습니다.

67 · 자주 묻는 것

중3 일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과학고에 떨어지면 외고에 지원할 수 있나요?

일정만 보면 가능합니다. 과학고는 12월에 끝나고 외고는 12월에 원서입니다.

다만 확인하실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 중복지원 제한이 있는지를 그 해 요항에서 보셔야 합니다. 갈래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둘,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입니다. 과학고는 수학·과학을, 외고는 영어를 봅니다. 12월에 급히 옮기면 영어 성취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면 옮기면 된다」는 계획은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3월에 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Q. 중3 2학기 성적이 정말 반영되나요?

갈래마다 다릅니다. 지방 학교 요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대개 중3 2학기까지 네 학기를 봅니다. 반영됩니다.

과학고는 중3 1학기까지만 곳이 많습니다. 다만 3단계에서 중3 2학기 내신과 출결을 추가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서를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원서 뒤의 성적과 출결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뒤에도 학교는 학생부를 봅니다. 12월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마지막 할 일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영재학교는 5월, 과학고는 8월, 외고·자사고는 12월입니다. 3월에 갈래를 정하고, 9월에 그 해 요향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향을 센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뀐다. 그 해 요향을 확인해야 한다.

68 · 한눈에**3년이 어떻게 생겼나**

중학교 3년은 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적이 안 세어지는 한 해가 있고, 세어지되 가벼운 두 학기가 있고, 가장 무거운 두 학기가 있습니다. 그 모양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큼니다.

학년	성적 비중	이 해의 일
중1	0%	공부하는 방식을 고칩니다
중2	40%	시험 보는 법을 익힙니다
중3	60%	결정하고 마무리합니다

비중은 가장 흔한 배분(중2-1·중2-2 각 20% · 중3-1·중3-2 각 30%) 기준이고, 확인한 자사고 12곳 중 10곳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중1이 0%인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그 해를 어떻게 쓰느냐가 나머지 둘을 정합니다.

이 편의 쓰임

앞의 다섯 편에서 **학년마다 확인하실 것**을 여덟 가지씩 드렸습니다. 이 편은 그것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학년의 칸만** 보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부터 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면에 **3년 내내 같은 것 셋**을 적었습니다. **학년을 놓쳤다고 느끼실 때 보실 자리**입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요향을 저희가 센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향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향을 확인해야 한다.

69 · 학년별 점검표

중1과 중2

중1 — 여덟 가지

- ☐ 중1 교과 성적이 **고입에 안 들어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그래도 **출결은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 ☐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시간** 이 있는가
- ☐ **필기를 스스로** 하는가
- ☐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가**
- ☐ 시험 전에 **스스로 계획** 을 세우는가
- ☐ 선행을 한다면 **지금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
- ☐ **2x가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는가

셋째부터 여섯째가 안 되면 선행보다 그것을 먼저. 이 넷은 중2·중3 내내 쓰입니다.

중2 — 여덟 가지

- ☐ **중2 1학기부터** 성적이 세어지는 것을 아는가
- ☐ **뒤 학기가 더 무겁다** 는 것을 아는가
- ☐ 지망 갈래가 보는 **과목** 을 아는가
- ☐ 첫 시험 결과로 **단정하고 있지** 않은가
- ☐ 못한 과목을 **방학에 메우고** 있는가
- ☐ **출결** 에 문제가 없는가
- ☐ **기울기 2** 가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는가
- ☐ 이어서 한 활동이 **하나라도** 있는가

일곱째가 중등 수학에서 가장 값이 큰 자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중3 이차함수와 고등 수학까지 갑니다.

70 · 학년별 점검표

중3

중3 — 여덟 가지

- ☐ 3월에 갈래를 좁혔는가
- ☐ 지망 갈래의 원서 시기 를 아는가 — 영재 5월 · 과학고 8월 · 외교·자사고 12월
- ☐ 지망 학교가 어느 학기까지 보는지 아는가
- ☐ 9월에 그 해 요항 을 확인했는가
- ☐ 자기소개서 초안이 10월에 있는가
- ☐ 배제사항 을 확인하고 썼는가
- ☐ 중복지원 규칙 을 확인했는가
- ☐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 정해 두었는가

여덟째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12월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갈래별로 보는 것

갈래	보는 과목	원서
영재학교	수학·과학 — 서류·검사·캠프	5월
과학고	수학 · 과학 성취도	8월
외고 · 국제고	영어 — 확인한 13곳 모두	12월
자사고	국·수·영에 사회·과학 — 학교마다	12월

출처: 각 학교 공개 요항.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뀐다.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71 · 세 가지만

3년 내내 같은 것

학년마다 할 일이 다르지만, 3년 내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왜
1	설명할 수 있는가	맞히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2	모르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 줄 모르면 못 고칩니다
3	이어서 하는가	한 번은 기록, 이어서는 이야기

이 셋은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같은 값을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값이 작은 것

바깥 실적입니다. 대회 입상, 영재원 수료, 공인어학 점수 —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는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쓰고 계신지 한 번 보십시오. 이 시리즈에서 저희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중학교 3년을 고입 준비 기간으로만 보시면 아이가 그 3년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일반고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가는 아이에게도 이 점검표는 그대로 쓰입니다 —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는 것을 아는가, 이어서 하는가. 이 셋은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값을 합니다.

72 · 자주 묻는 것

중학교 3년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특목고를 안 갈 아이도 이 점검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만 보실 자리가 다릅니다.

원서 일정·배제사항·중복지원 같은 항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일반고는 대개 **배정**입니다.

그런데 **중1의 여덟 가지**와 「**세 가지만**」 면은 그대로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 필기, 질문, 계획 — 이걸 어느 고등학교에 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2 일차함수**는 특히 그렇습니다. 고등 수학이 이 위에 올라갑니다. 고입과 무관하게 챙기셔야 할 자리입니다.

고입을 안 볼수록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이 셋에 쓰시면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납니다.

Q. 지금 중3인데 이 점검표를 보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자리와 안 늦은 자리를 나눠 보겠습니다.

늦은 것 — 중1·중2의 성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늦은 것 — 중3 두 학기가 60%입니다. 남은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만**」은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설명해 보게 하고, 모르는 것을 찾고, 하나를 이어서 — 이걸 한 학기로도 달라집니다.

지난 것을 세는 대신 남은 것을 세십시오. 대개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중1은 방식을, 중2는 시험을, 중3은 결정을 다루는 해입니다. 그리고 3년 내내 같은 것은 셋입니다 —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는 것을 아는가, 이어서 하는가.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강과 저희 상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해가 바뀌면 요강도 바뀐다. 반드시 그 해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73 · 닫으며**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확정된 것과 안 정해진 것을 가르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안 정해진 것에 대비하겠다는 말부터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